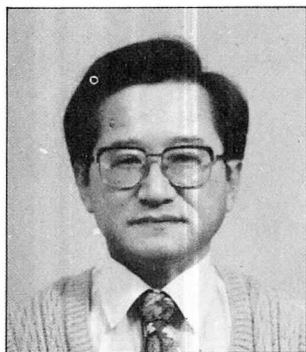


읽을 책이 없나, 독자가 없나

과학도서의 대중화 · 대량보급이 시급하다

金貞欽

고려대 교수 · 물리학



金貞欽교수

필자는 매달 어김없이 60-70권의 책을 산다. 물론 주로 과학기술분야이거나 그 인접분야에 관한 책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국내에서 발간된 책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왜 그런가? 첫째로 흥미를 끄는 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순한글로 썼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늦기 때문이다. 그 능률적인 한자를 없애고 순한글만으로 편집된 최근의 우리나라 책은 편집 자체가 평면적이고 답답해서 참고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책이라면 한자가 들어있는 경우와 순한글의 경우는 읽는 속도에서 3~4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시간과 싸우는 필자로서는 책 한권을 읽는 데 3~4배의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출판보다 수입외서가 더 많은 과학책

문공부 출판과 임광수씨가 「출판문화」지에 발표한 우리나라 외국간행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단행본의 경우 지난 1년간 구입된 외국책은 20만703종에 99만4,047권이라 한다. 같은 시기에 국내에서 출판된 책은 38,301종에 1억5,580만 1,083권이라고 한다. 권수로는 국내 출판이 15배 이상이나 많지만, 종수로는 오히려 외국도서가 5.4배나 많다.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이들 책 중 자연과학도서는 29%로 톱이고 다음이 사회과학도서의 26%, 예술이 17%, 문학이 16% 등등이라 한다. 국내도서에는 그렇게 비율이 낮은 자연과학도서가 수입쪽에서는 1위로 랭크되어 29%나 된다니, 기뻐해야 할 일인지 슬퍼해야 하는지?

왜 이런 괴리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기에는 쉽고 재미나는 과학책을 쓰지 않은 과학자들의 책임도 있거니와, 과학책을 사서 읽어주지 않는 독자의 책임도 있다.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 또는 권세 부리던 사람들의 과

거행적을 과해친 책들이라면 날개 돋힌듯 잘 팔리면서도 과학책들은 파리를 날리고 있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또 이름난 문인들의 수필집은 항상 베스트셀러인데, 과학자들의 에세이집들은 통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후자의 경우, 상당히 유명한 분의 재미나는 수필집마저도 말이다. 왜 다들 이렇게 과학책이라면 외면을 할까?

거기에는 실학을 멀리하고 인문숭상을 밀고온 이조 500년의 전통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합격해서 출세만 하면 된다는 뿌리깊은 생각들이 첨단과학시대인 오늘날에도 일반국민의 가슴 속 깊이 아직도 간직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과학책이 출간되지 않거나, 또는 출간되더라도 읽히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자연과학계 사람들이 계몽서 저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글을 써본 일이 드물어 문장력도 부족하거나, 더 중요한 것은 계몽서를 쓴다는 것을 일종의 타락이나 수치로까지 생각하는 정신구조마저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 전공분야의 교과서는 마지못해 집필하겠지만, 계몽서나 과학을 쉽게 풀이해서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는 소홀하다.

계몽적 해설서 쓸만한 필자 드물어

또 너무도 너무도 낮은 원고료도 과학책이 잘 저술되지 않는 원인의 하나이다. 원고지 한장에 1,500원 수준으로는 아무도 쓰려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정가 3,500원 수준의 책 하나에는 줄잡아 200자 원고지 1,300매 정도가 필요한데,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195만원 밖에 안된다. 만약 이것을 10%의 인세로 지불받는다면 초판 2000부라고 해도 겨우 70만원 밖에 안된다. 그래서 저자로서는 일시금으로 원고를 몽땅 매도하는 쪽이 유리해진다. 이렇게 원고를 매도해버리면, 자기가 쓴 책인데도 애착심이 없어진다. 그 결과 그 책이 출판되거나 재판될 때 오자를 바로잡거나 수정을 의뢰받더라도 잘 응하지 않게 된다. 고료를 이미 다 받았으니 헛수고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렇다. 그래서 재판이 되어도 그 책에는 오자가 그대로 남게 되어 더욱 더 악평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출판사측으로서도 원고지 한장에 1,500원 이상을 지불하기도 힘들다. 원고지 한장당 1,500원은 인세를 10%라고 볼 때

5,500부분의 인세에 해당한다. 과학책의 경우, 수필집이나 해설서가 6,000권이 나간다면 벌써 베스트셀러권에 들 정도이니 보통의 경우 원고료를 올려줄 수는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단행본 저술은 구미가 당겨지지 않는다. 이에 비하면 연구비쪽이 훨씬 더 구미가 당긴다. 적절한 제목의 연구비를 신청하면 자연계에서는 쉽게 5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이 연구비를 몽땅 자기 것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만큼 구미가 당

과학도서 출판이 지지부진한 데는, 쉽고 재미나는 과학책을 쓰지 않는 과학자들의 책임도 있거니와 과학책을 사서 읽어주지 않는 독자의 책임도 있다. 대학교수나 과학자들이 전공분야의 내용을 일반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서 쓴다는 것은 커다란 사회봉사를 뜻한다.

기게 된다. 게다가 연구 끝에 논문이 나오면 크게 평가받지만, 해설책이나 수필집 출간은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계 사람들의 수필집은 그 분야 어떤 정기간행물(잡지나 신문)에 고정칼럼으로 쓴 것을 모아서 엮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실은 타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의 원고료는 한장에 1,000원에서 1,500원이라도 족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정기간행물에 게재할 때 매당 3,000~5,000원의 원고료를 받았으니 말이다. 말하자면 불로소득이 되는 셈이다.

도서관의 도서구매력 확대돼야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외국의 경우도 인세에 얽힌 사정은 동일하다. 다만 그들은 초판에 적어도 5,000원은 찍게 된다. 정평이 나 있는 저자의 경우라면 쉽게 2판, 3판, 4판 등이 단시일내에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원고료도 무척이나 높게 책정이 된다.

외국의 경우는 왜 그런가?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왜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

은 한마디로 두터운 독자층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만 책의 내용이 재미있거나, 또 그 책에서 얻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쉽게 몇판이고 다시 찍게 된다. 또 전국 곳곳에 세워진 도서관이 꾸준히 새 책을 사준다. 인구 1억2천인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3배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웬만한 책은 5,000권 정도가 도서관에 의해 구매된다고 한다. 따라서 출판사는 안심하고 책을 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원고료도 지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원고료가 높아지면 저자의 의욕도 높아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저자는 성심껏 그 책 집필에 신경을 쓰게 된다. 이렇게 좋은 의미의 良循環이 계속 이루어진다.

또 선진국에서는 대중에게 인기있는 책을 쓴다는 것은 전문서적을 저술하는 것만큼이나 높이 평가를 받는다. 대학교수나 과학자들이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의 내용을 일반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서 쓴다는 것은 커다란 사회봉사를 뜻한다.

사실 구미 여러나라에서는 대학의 경우 대학교수의 역할에는 교육과 연구 외에 추가해서 사회봉사가 들어간다. 최고시설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얻은 고상한 연구결과를 완전소화시키고 일반대중이 흡수하기 쉽게 풀이를 해서 사회에 도로 환원시키고 환류시킨다는 것은 사업가나 기업들이 그 이득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착이 안돼 있고 널리 인식되어 있지 않다.

세상은 지금 통상적 공업화시대를 지나 첨단기술과 정보 기술이 최첨단에 나서 이끌어가는 고도기술사회, 고도정보화사회로 치달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량의 과학기술 시스템을 정비한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도첨단기술을 지난 88서울 올림픽에서 발휘한 바가 있다. 우리가 이 여세를 몰아 더 한층의 노력을 한다면 머지않은 90년대에 우리는 세계10대 기술대국에도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최일선에 나서 이끌어주는 우수한 과학자의 양성 외에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일반대중의 과학화'라는 저변확대도 시급한 일의 하나가 된다. 그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과학도서의 대중화, 대량보급화가 무엇보다도 열망되고 있다.